

樞密公派祖·忠憲公歲享奉行

추밀공파조 충헌공 세향 봉행

지난 10월 18일(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 177 추밀공(諱水平.10世, 충헌공(諱顯.11世) 단소에서 파친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향(歲享)을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날 참제를 위해 전국의 후손들은 서울에서 관광버스 2대, 강릉 1대, 대전 1대, 음성 1대와 문중별로 멀리 부산, 경주, 구미, 대구, 원주, 청주, 음성, 양주, 인천 등에서 삼삼오오 승용차로 편승해서 전진교에 도착하여 통과절차를 마치고 단소에 도착하여 세향을 봉행하였다.

세향에 앞서 권경석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아침부터 안개가 많이 끼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근 각지에서 참제를 위해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회장을 맡으면서 해야 할 일을 승조 제일로 파조 세향과 단소 관리에 힘쓰며, 각각 실패를 확인한바 일부가 중회발당을 소유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추밀공파는 종원으로 보면 안동 권씨의 3%이상이라는 가장 큰 종파이지만 화관이 없어 숙원사업으로 화관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여러 문중과 파친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또 “우리 파친들은 승조 애족의 마음으로 세향에 참석하고 있는데 자손들을 대동하고 참제하면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승조의 마음은 영원히



△추밀공추향제에 권혁봉초헌관 헌직하고 있다.

지속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세향의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 추밀공 : △ 초헌관 : 권혁봉 △ 아헌관 : 권광훈 △ 종헌관 : 권우철 △ 집례 : 권우철
□ 증헌관 : △ 초헌관 : 권현민 △ 아헌관 : 권태순 △ 종헌관 : 권우철 △ 집례 : 권우철 (권경일기자)



△추밀공 권경석회장의 인사

권榮俊 △ 측관 : 권炳善
□ 증헌공 : △ 초헌관 : 권炳文 △ 아헌관 : 권泰春 △ 종헌관 : 권五鉉 (권경일기자)



△충헌공 추향제에서 독축을 하고있다.

花山府院君 秋享祭 및 定期總會

화산부원군 추향제 및 정기총회

화산부원군총회(회장 권정택)는 지난 10월 11일 오후 1시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선영의 17세 화산부원군 휘 복 묘소에서 모든 참재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미년 추향을 봉행하였다. 이어서 정기총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우천으로 정기총회 자료를 간행물로 대신하기로 결정하여 간단하게 음복과 다과를 하여 모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유인물에는 감사보고 결산보고 예산편성안 임원명부 화산부원군 도지내 역 종중정관 종중토지매도건 등이다. 헌관분정은 화산부원군 초헌관 권태균 아헌관 권성욱 종헌관 권희택 좌랑공 초헌관 권용식 아헌관 권희범 종헌관 권인택

이보다 앞서 오전 9시에 19세 부정공



목자 묘소에 가서 종손인 경택씨의 헌작으로 제향을 올리고 10:30 정헌공 묘소에 합류하여 정헌공 밀작공 추향제에 참여하였다. (화산부원군 총회)

정조공파 대구파친회 보학강좌

정조공파대구파친회(會長 권정익)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5시 시내 백림식당에서 보학강좌를 개최하였다.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묘소에 대한 명배, 상음례에 이어 영일(寧日)파 친회장의 승조정신 양양과 파친회의 화

목도모와 후진장학과 의례예절 실전에 대하여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강의에서는 자랑스러운 안동권씨의 연원(淵源)과 정조공파 원류(源流)라는 주제로 사성유래(駁姓由來), 권문의 사시(四時), 능동묘역(陵洞墓域), 춘추향제(春秋享祭), 능동

재사(陵阿齋舍) 등과 정조공파의 연원과 파명(派名)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으로 강의를 하였다.

행사에 앞서 安東權氏正朝公派 源流(編輯 권정익)라는 제목의 책자를 특별히 제작하여 교재로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 하였다. 강의가 끝나고 참석자 30명은 식사를 하며 저마다 그간 못 다한 정담들을 나누며 화기에애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총무 권혁상)

석주공종회 운암서원 추향제 봉행

지난 10월 8일 11시에 광주시 북구 화암동에 소재한 운암서원(雲巖書院)에서 해광 송제민(海汪 宋籛民)선생과 석주 권필(石洲 權鞭)선생, 화암 송타(花庵 宋杻)선생의 추향제가 안동권씨 추밀공파 석주공후손과 흥주 송씨 후손 그리고 광주시 유림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운암서원은 숙종34년(서기 1708년) 해

광 송제민 선생과 석주 권필선생과 화암 송타선생 3위의 유덕을 숭모하기 위하여 호남의 사립 300여명의 발의로 창건되었으며 운암서원은 본소회장 송영수선생과 운암서원 오인규원장의 정성스런 관리로 잘 보존되고 있다.

석주 권필(石洲 權鞭)선생은 추밀공파 22세로 예조참의(禮曹參議)를 지낸 습제공 권벽(齊齊公 權攀)의 다섯째 아들로



서 선조2년(서기 1509년)에 태어났다. 공은 예조판서 이정구의 추천으로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제수되었으나, 곧 그만두

비운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의사의 여동생

부산 용호동 천주교 공원묘지에는 아주 특별한 묘 하나가 있다.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인 안성녀 여사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안 여사의 친손자인 권혁우(71.대연5동 거주)씨가 동행했다.

도로서서 100여m 내려오자 오르막도를 내려 다보는 작고 초라한 봉분이 나왔다. 시멘트로 만든 묘비에는 서툰 한글로 ‘안누시아성 여씨묘’라고 적혀 있다. 무덤 바로 앞은 비탈이 있어 절을 올릴 수도 없었다.

원래 안 여사는 62세 화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란 와 1954년 영도구 신선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당시 손자 권씨는 아버지와 함께 손수레에 시멘트와 모래를 실어와 묘단과 비석을 만들고 글자를 직접 새겼다고 회고했다. 안 여사는 오페 안중근이 하얼빈 의거를 일으키고 이듬해 서거하자 연해주와 만주 등

지로 망명길에 올랐고 오랜 세월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학계는 물론이고 안중근에게 정근. 공근 두 남동생 외에 누이동생이 한 명 있었다는 점도만 알려져 있을 뿐 안 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전무했다. 독립운동을 입증해 줄만한 공식 문서가 없어 국가보훈처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해를 현충원으로 옮기지 못하고 40년 넘게 천주교공동묘역 풀숲에 방치된 것도 이 때문이다. 독립유공자 서훈 지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100년 전 오빠를 따라 목숨 내놓고 독립운동하신 분입니다. 더욱이 여자의 몸인데 무슨 증거를 남길 수 있단 말입니까.” 권씨가 어어었다는 뜻이 말했다.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먹고 사는 게 빠듯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 기록의 중요성을



△안여사의 묘소와 손자 권혁우씨

인식하지 못했다”며 “얼마 안 되는 할머니의 흔적이기도. 그때 남겨두고 보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다”며 기슴을 쳤다.
민족영웅을 친오빠로 둔 안성녀 여사의 삶은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다. 1910년 오빠 안중근이 귀순 감옥에서 숨을 거두자 이미 혼례를 치른 안 여사는 남편, 친정 일가 등과 함께 중국으로 급거 망명한다. 이후 안 여사의 집안이 상해로 이주하고 안 여사의 가족은 만주에 잔류하면서 두 집안은 헤어지게

부호장공파종회 파조 추향제 봉행



△원내는 권인호 초헌관

부호장공파종회(副戶長公派宗會: 회장 권오정)는 파조(派祖)의 두 번째 추향제(秋享祭)가 10월 10일 오전 11시 안동시 대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참제원(參祭員)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奉行)하였다.
이날 분정(分定)은 초헌관(初獻官) 권

인호(權仁虎), 아헌 관(亞獻官) 권희택(權羲宅), 종헌관(終獻官) 권우연(權宙衍), 축(祝) 권오진(權五鎭), 집례(執禮) 권오중(權五重)이 각각 담당하였다.
권인호 도유사(都宥司)는 인사말에서 “연

휴에도 불구하고 종원(宗員)들이 파조님 추향제에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한 후 안동권씨 성(姓)을 하사한 내력, 삼태사와 병산대첩(瓶山大捷), 일원정(一源亭)에 관한 내용 등 여러 가지를 소상히 이야기하고 나서 “안동권씨 가운데 부호장공파가 두 번째 집으로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서울에서는 해파동로 터리에서 권영록씨의 인솔로 오전 8시에 전세버스를 이용했으며 대전(1대), 인천(1대), 인천, 파주, 용인, 이천 등 전국 각처에서 개인 승용차 편으

정헌공(正獻公)추향제 봉행



△정헌공 추향제에서 권준식 초헌관이 헌직하고 있다.

로 300여 명의 후손이 참가한 가운데 정헌공 의 9위분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특히 이날 오후 비가 오는 관계로 좌원공,

서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서울에서는 해파동로 터리에서 권영록씨의 인솔로 오전 8시에 전세버스를 이용했으며 대전(1대), 인천(1대), 인천, 파주, 용인, 이천 등 전국 각처에서 개인 승용차 편으

로 300여 명의 후손이 참가한 가운데 정헌공 의 9위분의 추향제를 봉행하였다. 특히 이날 오후 비가 오는 관계로 좌원공, 예참공, 주부공은 「헤미리촌마을회관」에서 봉행했으며 제례봉행전에 권준식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지면관 계로 4위분만 게재한다.)
□ 정헌공 : △ 초헌관 : 권榮俊 △ 아헌관 : 권榮泰 △ 종헌관 : 권榮在 △ 집례 : 권錫九 △ 대축 : 권善漢
■ 밀직공 : △ 초헌관 : 권泰義 △ 아헌관 : 권成達 △ 종헌관 : 권五尙 △ 집례 : 권錫九 △ 대축 : 권五甲
□ 부윤공 : △ 초헌관 : 권錫英 △ 아헌관 : 권錫五 △ 종헌관 : 권錫益 △ 집례 : 권錫九 △ 대축 : 권光享
■ 좌원공 : △ 초헌관 : 권윤근 △ 아헌관 : 권영록 △ 종헌관 : 권일원 △ 집례 : 권석구 △ 대축 : 권둔원 (글:권오복·사진:권경일 기자)

소등재사관리위원회 창립총회



북야공파 판서공계로 호군(護軍)이고 증(贈) 이조판서(吏曹判書)인 휘(諱) 관(峴)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한 소등재사관리위원회(所等齋舍管理委員會) 창립총회를 지난 10월 5일 11시 안동시 대화동 소재 북야공파종회관에서 후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소등재사는 안동시 와룡면(臥龍面) 태리(台里)의 소등촌(所等村)에 있으며, 중요민속자료 제204호인 조선시대의 목조 와가이다. 1726년(영조 2)인 병오(丙午)에 세우고 1727년인 정미(丁未)에 확장하였으며, 2004년 8월에 중수(重修)하여 재실(齋室)로 사용해보고 있다.
소등재사관리위원회는 후손들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재산과 문서일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권계동(權啓東) 금년도 추향 도유사가 회의를 진행하여 회칙을 통과 시키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였다.

관리위원회 고문은 권종준, 권속도, 권태규, 권우수, 권계동, 권오전, 권주섭이고, 위원장에 권창용(맛질), 부위원장은 권대인(신한), 권경섭(진작), 감사는 권혁

된다. 1920년 독립운동을 하던 남편 권승복이 숨지면서 타국 생활은 더욱 힘겨워졌고 결국 만주를 떠나 해방을 맞이까지 외아들 권현을 데리고 중국 전역을 유랑했다고 알려져 있다.
광복이 되면서 여사의 가족은 40여년 만에 조국의 품에 안긴다. 중국에서 태어난 장손 권혁우씨도 할머니 손을 잡고 처음 한국땅을 밟았다. 안 여사를 ‘누나’이라 불렀다는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의 도움으로 서울 쌍림동에 거처를 마련했지만 얼마 안 돼 6.25가 터져 부산으로 내려 와 1954년 영도구에서 질병과 노환으로 숨을 거두었다.
“너무 여러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지만 대축 같은 분이었던 것으로 어렵듯이 생각난다. 생활이 궁핍해 할머니가 어린 저를 데리고 부산시장을 찾던 적이 있었어요. 비서진들은 할머니가 누군지 몰라 시장님이 있는데도 없다고 돌려댔죠. 조금 있다 시장이 집무실에서 나오는 걸 보시더니 할머니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시장의 머리를

장에 추서됐다.
안 여사의 외아들인 권현 선생(오항선 여사 남편) 역시 항일투쟁에 헌신한 독립투사다. 권현 선생은 평소 “내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니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선생은 1980년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됐지만 혁우씨는 유훈에 따라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신청은 하지 않았다.
혁우씨는 할머니의 독립유공자 지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다녔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규정집을 내보이며 ‘문서상의 불명’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그나마 할머니를 증언해 주던 모친이 작고하고 옆집에 달친 격으로 집안에서 불이 나는 통에 “그나마 갖고 있던 자료마저 모두 소실됐다. “안중근의 동생이자 항일투사였던 할머니의 명예를 찾아드리는 일이야말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효도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였다.
(부산 남구신문, 부산총친회)